

중국 當代詩를 통해 본 농민노동자의 현실

- 《21世紀詩歌精選》 1집, 2집을 중심으로

이희현*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농민, 농촌 잔류의 아픔
 - III. 농민공, 도시 浮遊의 슬픔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본 논문은 2001년 말 WTO 가입 이후 심화되어 온 중국의 농민문제가 當代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농민노동자¹⁾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 농민문제에 대한 시인들의 인식태도를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농민문제는 중국의 주요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다.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농민은 식량자원을 공급해왔고 때에 따라서 기층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역사를 이끄는 동력이 되어 왔지만, 그에 걸맞은 제대로 된 사회적 지위 확보 및 경제적 보상은 받지 못해왔다고 하겠다.

특히 21세기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본화·도시화는 중국 농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 농민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와 특수한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보편적인 문제라 함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농촌 공동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1)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산업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나 본고에서의 '노동자'는 육체노동을 통해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농민노동자'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도시에서 농민의 신분으로 노동을 팔아 생활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화, 토지문제, 환경문제 등의 일반적인 농민문제 발생을 가리키고, 특수한 문제라 함은 독특한 중국 호구제도에 따른 농민공²⁾ 출현과 그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21세기 이후 발표된 일부 當代詩를 통해 이러한 제반 농민문제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을 통해서 보편적인 중국 농민문제를, 도시에 머물고 있는 농민을 통해서 특수한 중국 농민문제를 각각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후진타오 정부는 이러한 농민문제 발생에 따른 사회문제 심각성을 인식하여, 줄곧 ‘조화사회론(和諧社會論)’을 내세우며 도·농간의 불균등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식인 사회에서도 농촌문제와 관련한 제반 문헌들을 도서출판 시장에 대량 출시하고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민시위는 증가하고 있으며, 농민공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은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렇듯 높은 정치적·사회적 관심도에 불구하고, 중국의 제반 농민문제가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2000년 초에 발표된 當代詩 작품을 통해 중국 농민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농민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인 지식인 사회가 바라보는 현금 농민문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 정도와 그 한계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李少君의 시 선집 《21世紀詩歌精選》 1집과 2집을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논문 텍스트 범주설정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 시 선집을 검토한 결과, 李少君이 시를 모아 펴낸 《21世紀詩歌精選》 1집, 2집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두 권의 시 선집을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世紀詩歌精選》 1집의 경우 ‘草根⁴⁾詩歌特輯’이라는 부제 하 선집한 시집이라

2) ‘농민공’이란 ‘농민신분이면서 도시로 나와 비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所謂農民工, 就是指那些保留農民身分的城市中從事非農業活動的人) (張躍進, 《中國農民工問題解讀》,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7. 30쪽)

3) 중국 제반 농민문제에 대해 ‘三農’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삼농’이란 본래 봄갈이, 여름 갈이, 추수로 이루어진 세 단계의 농사를 의미하나, 농민, 농촌, 농업을 아우르는 용어로 2000년 당시 湖北省 監利縣 棋盤鄉의 당서기였던 李昌平은 그해 8월 “현재 농민은 정말 어렵고 농촌은 매우 빈궁하며 농업은 실로 위험에 처해있다(現在農民真苦, 農村真窮, 農業真危險)”라는 내용의 서신을 국무원에 보냈는데 이 내용이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일영, 〈중국의 농촌개혁과 ‘삼농’문제〉: 《현대 중국의 이해》, 서울, 2005. 239쪽 참조)

일정정도 사회비판 시각을 담고 있어 농민문제에 대한 시각 역시 추출할 수 있는 적당한 시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21世紀詩歌精選》 2집의 경우 ‘詩歌群落大展’이라는 부제 하, 중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시인들의 작품을 선별해 수록한 시집이라 중국 전 지역을 아울러 다양한 시인들의 시각 확보가 가능 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21世紀詩歌精選》 1집, 2집에는 2000년대 이후 발표 한 작품이 각각 330여 수, 380여 수 등 총 710여 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농촌, 농민 소재를 다룬 작품은 70여 수 정도로 전체 작품의 대략 10% 가량을 차지한다. 이 텍스트가 2000년 이후 중국 當代詩 작품의 객관성, 대표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중국에서 비교적 비중 있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시인의 작품 이 다수 수록되어 있기에, 단편적으로나마 중국 시인들의 프리즘을 통해 현 중국 농민사회상을 살피고, 더 나아가 지식인 사회의 농민문제에 대한 인식 태도를 파악 하는데 표본적 지표로 참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농민, 농촌 잔류의 아픔

‘하나의 직업으로서 ‘농민(famer 또는 cultivator)’을 정의하면 세계 농민 중에서 차지하는 중국 농민의 비중은 2/5를 밑돌지만, 일종의 사회신분으로서 ‘농민’을 정의한다면 중국인이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학자 秦暉는 중국의 문제는 사실 농민문제라고 말하기도 하였다⁵⁾. 이는 농민문제가 차지하는 사회학적 중요도를 일깨우는 지적이라 하겠다. 농민문제는 결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이 자신의 생활터전인 농촌에서 제대

4) 草根이란 정부 혹은 정책 결정권자와 대립되는 세력 혹은 주류, 고급문화와 대립되는 하층계층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李少君은 서문에서 이러한 ‘草根性’을 첫째, 글로벌화에 겨누어 본토적 특징을 강조하고 둘째, 서구화에 겨누어 전통을 강조하며, 셋째, 관념적인 글씨기에 겨누어 경험과 느낌을 강조하며, 넷째, 공공성에 견주어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李少君主編, 《21世紀詩歌精選》·第1輯,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6. 1쪽 참고)

5) 친후이·쑤원/유용태 역, 《전원시와 광시곡—농민학에서 본 중국의 역사화 현실사회 비판》, 이산, 서울, 2000. 22쪽-23쪽.

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풍경도 균열된다. 농촌은 본래 「나의 마음 편히 내려놓을(安下我的心)」 수 있는 「광활한 시골(廣闊的鄉村)⁶⁾」이었으나, 현재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를 겪으면서 중국농촌은 빠른 속도로 붕괴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풍경으로서의 농촌과 현실 농촌의 모습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생기고 농촌풍경은 마냥 향수를 자극하는 정서적 공간으로 남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해지고 있다.

건초 위의 면양이 묵묵히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유채꽃밭에 놓여있는 벌통은!// 눈물 같은 소는 바위에 매여 있고/ 경운기는 돌아
오는데 벼짚을 실었다// 아, 시들어버린 연꽃가지는 고인이 남긴 정신과 같다
/ 어떤 것도 무너져 내린 옛날 집을 보는 것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다//
.....// 찻간에서 사람들은 떨어지는 해,/ 복숭아나무에 걸쳐있는 농부의 푸른 무명
적삼 한 벌을 응시하고 있다
— 〈길에서〉 중 일부⁷⁾

시적화자는 멀리 ‘찻간’에서 풍경으로서의 농촌과 현실로서의 농촌을 동시에 바라본다. 그 간극에서 오는 시선은 불편하게 섞여 있다. 즉, 한가롭게 사료를 먹고 있는 ‘건초 위의 면양’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의 농촌이지만, ‘눈물 같은 소’, ‘시들어버린 연꽃가지’, ‘무너져 내린 옛날 집’, ‘떨어지는 해’, ‘농부의 푸른 무명적삼 한 벌’ 등은 퇴락해가는 슬픈 농촌 현실이다. 농촌의 풍경과 고통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적화자의 목소리는 진실하고 따뜻하나, 그 간극을 두루뭉술하게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은 농촌 현실의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고된 노동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기대어 살아가지만 농민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는 혹은 안하는 시인의 불편한 양심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는 농업노동자의 고통은 자식을 기르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농촌 ‘어머니’의 희생과 닮아 있다.

6) 〈광활한 시골에서 내 마음을 쉬게 하네〉(〈在廣闊的鄉村安下我的心〉) 중 일부, 王夫剛.
7) 枯草上的綿羊默默無言地望着遠方,/ 多美啊, 擺在油菜花地的蜂箱!// 一頭眼淚般的牛栓在石頭上,/ 拖拉機來回運着稻草./.....// 啊, 枯萎的荷枝猶如古人殘存的精神!//.....// 沒有什麼比看到倒塌的舊房子更加令人難受./.....// 在車廂裏, 人們凝望着落日,/ 一件掛在桃樹上的農民的藍布褂! — 〈在路上〉, 楊鍵.

오랜 세월 어머니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관절을 두드리며 명치를 쓸어내리시고
 계시네/ 약탕기처럼 오랜 세월/ 어머니는 계속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다리고 계시
 네// 시골에서 어머니는 늘 바쁘셨고 죽어라 버텨 내셨지만/ 오랜 세월 어머니는
 가난했지 씻어낸 듯/ 그녀의 몸에는 쌓인 것이 없었지/ 어머니는 다만 옥수수의
 꽃가루와/ 세찬 바람 속의 진흙, 먼지와/ 임시영수증, 흉작 그리고 무거운 세금징
 수액 만을/ 그녀의 폐부 그늘 속에 모두 저장해 두셨지// 오랜 세월, 그녀는 줄곧
 침묵하고/ 참고 감추고 가리시고는/ 우리가 당신의 연약한 마음 엿볼까 염려 하시
 네// 이 분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 시골의 어머니/ 오랜 세월, 그 상처와
 병, 아픔과 고통들은/ 그녀의 허약한 곳에 있지 않고/ 시골 여인의 운명 깊숙한
 곳에 있네
 — 〈어머니의 아픔〉 전문⁸⁾

농촌의 고통은 고된 농사일과 경제적 보상 결여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농민의 삶
 은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가난으로 요약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촌은 젠더
 불평등적으로 탈농업화가 진행되어 농촌에 남아 있는 농업 인력은 대부분 여성이
 다⁹⁾. 한평생 고된 농사일로 병들어 늙어가는 촌부 ‘어머니’의 모습은 농촌에 잔류해
 있는 농민의 가감 없는 자화상이다. 농촌의 여성은 도시의 여성보다 훨씬 많은 고통
 을 겪어진다. 그것은 농촌사회의 보수성에도 맞물려있다. 촌부 ‘어머니’는 ‘관절’이
 쭈시는 고통과 ‘무거운 세금징수액’에 짓눌린 희생 속에 살아가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또한 자식들이 염려할까 그저 ‘시골 여인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이중삼중의
 고통을 묻어놓고 참고 살아간다.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 〈독작〉(獨飲)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연로한 아버지’ 역시 고된 농사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면 뼈가 쭈
 시는데(在陰雨天, 骨頭發痛)」「질 낮은 독주(一瓶低質的烈酒)」로 그 고통을 참고
 살아간다¹⁰⁾. 그래서 토지를 경작해 먹고살아가는 농민에게 ‘토지’는 애증의 대상이

8) 很多年了, 她抱着頭/ 她敲打關節, 她撫摸着胸口/ 就像一只藥罐, 很多年了/ 她一直在
 熬着她的疼和痛// 在鄉下, 她一直在忙碌和掙紮/ 很多年了, 她貧困如洗/ 她身無積蓄
 / 她只把玉米的花粉 / 把大風中的泥土和灰塵/ 把白條、歉收, 和沈重的稅款/ 全都儲
 進她肺部的陰影裏// 很多年了, 她一直都沈默着/ 忍着, 藏着, 掩着/ 生怕我們窺見她
 內心的脆弱// 這就是我的母親, 我們鄉下的母親/ 很多年了, 那些傷和病、疼和痛/ 不
 在她單薄的身體裏/ 而在她一個鄉村女人的命運深處〈母親的疼痛〉, 熊焱

9) 최현실, 〈최근 중국의 농민공 동향〉: 《아시아 여성연구》,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10년 49권 1호, 2010.5, 165쪽 참고 (최지영, 〈개혁개방 이후 탈농업화 속의 중국
 농촌여성문제에 대한 젠더적 고찰〉: 《현대중국연구》, 2006년, 8-41쪽 재인용)

10) 〈독작〉(獨飲), 修遠

된다.

토지는 나를 일생 지치게 한다/ 토지는 내 등이 신속하게 펴지 못할 때/ 높다란
수수를 키운다/ 내가 막 저주하려고 할 때 송기를 불렀다/ 토지는 내가 한평생을
의지한 아내이다// 애증이 교차하는 토지 내게 고난을 주는 토지/ 세월이 나
를 버릴 때/ 토지는 마지막엔 나를 거두어 내 뼈를/ 인화로 밝히는데 이것이 바로
시골 사람의/ 한평생의 빛발인 것이다 — 〈빛발〉 중 일부¹¹⁾

농민에게 ‘토지’는 ‘높다란 수수’를 키워주는 ‘한평생을 의지한 아내’같은 존재이나,
농민인 ‘나’를 ‘일생 지치게’ 만들고 ‘고난을 주는’ 고통스러운 땅이다. 토지는 생명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의 공급원이기에 농민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생명에 힘입어 살아
가야 하는 모든 생명체들 역시 원천적으로 토지에 빚지고 산다. 토지가 농민에게
경제적으로 튼튼한 기반이 되지 못하는 순간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원천이자 농민의
발목을 붙드는 희생의 무덤이 된다¹²⁾. 게다가 농촌산업화에 따라 경작지였던 토지
는 그 용도의 변경을 요구 받고 있다.

시골이 도시로 변했다/ 무덤은 공장으로 변했다/ 비천한 것은 오만한 것으로 변
했다/ 침묵하는 것은 큰소리 지르는 것으로 변했다/ 나는 깊은 밤 여전히 전해오
는/ 이 포효하는 소리가 기계인지/ 아니면 망자가 내는 것인지 모른다/ 그 광활한
묘지 무수한 사자들은/ 이미 각각의 일관작업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몸을 밀착
시켰는데/ 박탈당한 분노와 고민을 지닌 채/ 의복과 신발을 생산해내면/ 이 시각
바로 그대 몸에 착용한다 — 〈묘지 공장〉 전문¹³⁾

11) 土地讓我一生勞累/ 土地在我脊背快伸不直時/ 長出高高的高粱/ 我在即將詛咒時唱
起了頌歌/ 土地是我廝守了一輩子的婆孃// 愛恨交加的土地 讓我受苦受難的土地
地/ 當歲月遺棄我時/ 土地最終將我收留 讓我的骨頭/ 點亮燐火 這就是一個鄉下人/
一生的光芒 〈光芒〉, 盧衛平

12) 江臘生, 〈當下農民工書寫的想像性表達〉: 《文學評論》, 北京 中國社會科學研究所,
2008.3. 202쪽 참고

13) 鄉村變成了城市./ 墳墓變成了工廠./ 卑微的變成高傲的./ 沈默的變成大喊大叫的./
我不知道在深夜仍然傳來的/ 這些喉聲, 是機器/ 還是亡魂發出的一/ 那廣闊墓地無數
的死者/ 已附身于每一個/ 流水線作業的工人/ 帶着被剝奪的憤怒和苦悶/ 生產出衣
服、鞋子/ 此刻就穿在你身上. 〈墳墓工廠〉, 唐不遇

농촌 토지 변경으로 '향촌은 도시'로 변하고 심지어 '무덤' 위에도 '공장'이 세워져 죽은 자의 편안한 영면도 허락되지 않는다. '깊은 밤'까지 '공장'에서 나오는 '기계' 소리는 마치 망자들의 '포효'처럼 시끄러운 소음을 낸다. '분노'와 '고민'마저도 '박탈당한' 사람들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 생산한 '의복과 신발'을 우리는 편안하고 저렴하게 착용하며 산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묘지 공장'의 간접적 공범이 된다. 이처럼 값싼 노동력에 기댄 저렴한 제품소비문화를 반성하고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묘지' 위에 세운 '공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묘지'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토지 변경에 따른 각종 농민 시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농민문제를 다룬 작품 속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지닌 작품이 드문 편이라 하겠다. 어쨌든 2020년에 이르면 도시화 비율이 60%, 공업화 비율이 70%에 이르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농경지 토지 감소도 초래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중국 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일인당 경작 토지 비율 역시 낮은 편이지만, 이론적으로 중국 토지가 공유제로 되어 있어 공권력에 의한 토지 손상은 지속될 것이다¹⁴⁾. 이로 인해 토지 용도변경 및 이에 따른 보상 문제와 관련해 농민 시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용도변경 자체도 문제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 최하층은 더욱 빈곤층으로 전락된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사회 구조 전환기에 있어 공평무사하게 사용되어야 할 公權力은 '公'이 제거된 '權力'만 난무하기에 필연적으로 민중의 저항이 생기는 것이다. 산업화가 낳은 토지 오염문제는 언젠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곳은 이미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되었다/ 시멘트 공장, 주유소, 그림자는 의심스러운 냄새를 띠고/ 한 묘 한 묘의 겨울 밭을 단단히 눌렀다/ 토지, 이 버려진 어머니/ 너무나 많은 농약을 먹어 얼굴빛이 누렇다// 다 벗겨진 작은 나무 수풀 사이/ 산비둘기의 울음소리는 흡사 임종의 외침처럼/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허상이다// 바람은 따뜻해졌고, 공기 중 어렴풋한 암모니아는/ 이 농업국가 마지막의 아주 적은 냄새/ 돼지 한 마리가 무관심하게 자동차 뒤를 따라 오만한 도시로 걸

14) 蔡繼明, 〈中國土地制度改革〉: 《二十一世紀》, 第111期, 香港, 香港中文大學, 2009. 2. 1쪽 참고

어들어간다// 아, 운명은 마침내 준엄하게 처리되었다/ 고향생각에 빠진 산비둘기
가 모조리 민둥이 된 수풀을 날아갈 때/ 그것의 가슴 줄이는 울음소리가 한 묘 한
묘의 겨울 밀을/ 비통함에 녹슬게 하더니 죽게 만들었다

— 〈이곳은 이미 한 톨의 가치가 없다〉전문¹⁵⁾

‘토지는’ ‘농약을 먹어 얼굴빛이 누렇게’ 될 정도로 ‘시멘트 공장’, ‘주유소’, 그 밖
의 각종 ‘의심스러운 냄새’로 오염의 땅이 된 ‘버려진 어머니’와 같다. ‘산비둘기 울
음소리’마저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임종’을 알린다. 결국 ‘겨울 밀’은 ‘비통
함에 녹슬어’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토지의 오염은 연쇄적 죽음을 불러온다. ‘농
업국가’의 위기는 ‘공기 중 어렴풋한 암모니아’ 냄새로 감지되고, ‘무관심하게 자동차
뒤를 따라 오만한 도시로 걸어 들어가는’ ‘돼지’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상징한다. 이
렇게 변경·오염 된 토지는 쉽게 농지로 회복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토
지문제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은 시급하다.

이렇게 토지의 오염, 빈곤한 농촌, 힘든 농사일에 지친 농민은 너도나도 오랜 등
지였던 고향을 떠난다. 그래서 농촌 공동체는 무너지고 농촌문화도 점차 사라진다.
물론 개혁·개방 이전 중국 농촌 사회의 공동체가 이상적이진 않았을 것이다¹⁶⁾.
그러나 농민에게 강요된 일방적인 희생과 그에 따른 이농은 제반 부작용을 낳고 있
다. 문제는 농촌에 남은 자와 농촌을 떠난 자에게 힘든 상처와 과제를 남기고 있는
데, 이들 고통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없는데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골마을
은 마을을 하나 줄이고 마을은 한 집을 줄이고 집은 돌맹이로 쌓아 만든 작은 방을
줄이게 되는(鄉村減略到一個村庄, 村庄減略到一座房子/ 房子減略到石頭砌成的
小屋)」¹⁷⁾ 농촌 공동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15) 這地方已經一文不值./ 水泥廠, 加油站, 陰影帶着可疑的氣味/ 莊住了一畝一畝的冬
麥./ 土地, 這被遺棄的母親./ 吃了太多的農藥, 臉色蠟黃./ 光禿禿的小樹林裏./ 斑
鳩的叫聲, 仿佛臨終的呼喊./ 令人膽寒的虛幻./ 風暖了. 空氣中淡淡的氦./ 是這個
農業國度最後的一點點氣味./ 一頭豬冷漠地跟在汽車後邊, 走進傲慢的城市./ 唉, 命
運終於給了嚴峻的安排./ 當思鄉的斑鳩從光禿禿的樹林飛走./ 它揪心的叫聲會讓一畝
一畝的冬麥/ 因悲痛而生鏽, 死掉. — 〈這地方已經一文不值〉, 楊子

16) 秦暉는 ‘공동체’의 개념을 토니에스Tonnie에게 빌려 전체성에 입각하여 성원 간의 의
존성이 강하고 인격이 독립되지 못한 공간으로 해석하면서, 중국 전통 농촌 사회는 ‘착
취하는 공동체와 피억압자 개인의 구조’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왕후이 외/ 장영석
외, 《고쳐하는 중국》, 길, 서울, 2006, 207-211쪽 참고)

물론 어떤 이들은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 몇 몇은 틀림없이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농촌을 떠나지 않지만(那幾個人 肯定是固執的人/ 他們不走 不離開 一直在遠處)」¹⁸⁾, 대부분 농민들은 떠날 형편조차 여의치 않아 남겨진 사람들이다. 실례로 농민공의 도시 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국 중부 일부 지역이고, 이농 비율이 낮은 지역은 낙후한 서부 지역의 농민들이라는¹⁹⁾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떠나지 못한 농민은 더욱 깊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쨌든 농촌에 남아 있는 농민은 「이처럼 텅 비어 있는 겨울 밀밭에 그들의 존재가 걱정이 되는(在如此空蕩的/ 冬日的麥田上 他們的存在讓人擔心)」²⁰⁾ 것이다.

내가 있는 마을에/ 날이 선선히지자 철새가 날아갔다// 봄에 왔다가 가을에 가는 철새는/ 마을의 돈이 있는 사람이라/ 해마다 남방으로 가서 겨울을 보낸다// 참새를 남긴다, 이 떠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은/ 대설이紛紛히 내리는 처마 아래 / 밭을 동동 구르며 춥다고 소리친다/ 맞다, 겨울은 매우 춥다/ 서리가 엉겨 붙은 토지와 북풍은 칼처럼 배어져 얹어졌다/ 담장을 넘어가는 빛 // 철새는 가버렸다/ 내가 있는 마을에/ 빈 등지 몇 곳이 마치 가위에 혀가 잘린 헛바닥처럼/ 걱정스럽게 병어리로 변한다// 어슴푸레한 하늘/ 철새가 날아갔다, 날아간 철새 그리고/ 물가의 드문드문한 풀색 —〈철새〉전문²¹⁾

농촌 사람들의 이농은 빈부의 양극화를 보여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즉, '참새'인 가난한 농민은 어쩔 수 없이 텅새가 되어 농촌에 남고, '돈 있는 사람'은 '철새'가 되어 '겨울'에는 '남방'으로 떠난 '겨울'을 보낸다. '빈 등지'로 남겨진 농촌은 '혀가 잘린 헛바닥'이 되어 어디에 대고 농촌의 현실을 호소할 수조차 없다.

17) 〈줄이고 생략하다〉(〈減略〉, 田禾).

18) 〈들판에 몇 사람이 있다〉(〈原野上有幾個人〉), 大解.

19) 魏城, 《中國農民工調查》, 北京, 法律出版社, 2008. 37쪽 참고.

20) 〈들판에 몇 사람이 있다〉(〈原野上有幾個人〉), 大解.

21) 在我的村庄/ 天涼了, 候鳥就飛了// 春來秋去的候鳥/ 是村裏的有錢人/ 年年要去南方過冬// 留下麻雀, 這些走不了的窮人/ 在大雪紛飛的屋簷下/ 踩着腳喊冷// 是啊, 冬天好冷/ 凝霜的土地北風如刀, 削薄了/ 移過牆頭的光亮// 候鳥就飛了/ 在我的村庄/ 多少空巢像剪掉舌頭的嘴巴/ 悄悄變啞// 灰蒙蒙的天空/ 候鳥飛了, 飛走的, 還有/ 水邊片片草色 —〈候鳥〉, 江一郎.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자본의 거대 흐름 속에 불평등 종속구조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은 그야말로 '서리가 영겨 붙은 토지'이다. '서리가 영겨 붙은 토지'와 '대설이紛紛히 내리는' '겨울'은 현재 중국농촌을 대변하는 상징인 것이다. 농촌에 남겨진 사람들은 '북풍'이 불어오는 '겨울'을 힘들게 버텨야하지만, 농촌을 떠난 '철새'의 여정도 장밋빛은 아니다. 어쨌든 이들 '철새'들은 농촌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차'를 타고 부단히 도시로 진입한다.

도시화란 인구가동 면에서 보자면 농촌 공동화이자 도시인구 밀집 과정이다. '기차'는 이러한 도시화를 촉진하는 주요 운송수단이다. 그런 까닭에 농촌공동화를 촉진하는 매개로 '기차'가 시에 자주 등장한다. 〈기차, 시골마을을 빠르게 지나간다〉에서 '기차'는 농촌을 텅 비게 만들어 그로 인해 발행하는 제반 고통을 가져다주는 때와 역할을 하지만, 농민의 시티드림을 실어 나르는 희망의 출로이기도 하다. 근대화 태어난 '기차'는 이렇듯 태생적으로 역기능과 순기능 혹은 성공과 실패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기차'가 '시골마을'로 '돌진'하는 '찰나' '시골마을'은 '돌'로 갈라지고, '이쪽의 들판'과 '저쪽의 하천' 마을은 서로 '낯설어' 진다. 이렇듯 '기차'는 '시골마을'의 분열을 야기하며 농민의 '걱정상심을 훌러지게'하기도 하고 또 '모이게도' 하는 희망과 절망의 부단한 변주다²²⁾. 이 변주가 농촌을 자꾸 유동하게 만든다.

바람은 어두운 저녁의 반들거리는 등, 그 집들에 분다/ 나무는 평원의 수역을 따라 유동한다/ 등 잔 하나 하나 밝은 가지(광선) 한 가닥 한 가닥/ 깜박이고 있다 들어 올리고 있다 마을은 황량하고 춥다 //철도 양 쪽의 마당 내달리는 느티나무 수풀/ 들판, 등불, 평원으로 떨어지는 별/ 풍경은 끝이 없고 춘삼월 저녁 속에/ 아,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가! 흔들리는 달// 갈색의 검누른 달이 들판 저쪽에 서서/ 한 조각 한 조각 아득히 먼 입술로 물결모양의 봄밤에 붙고 있다/ 그것의 낮은 읊조림 고달프고 빈한한 농촌마을/// 기차가 유동을 멈춘 5분간의 간이역 심야 3시/ 15개 뱀 꺾질 자루는 찻간에 비집고 올라간다 그들의 고향치는 소리는/ 농촌마을을 밝혔다 플랫폼에서 들어 올린 손/ 유리창에 바짝 붙은 얼굴 기적은 막 평원을 미끄러져 지나간다
— 〈심야기차〉 중 일부²³⁾

22) 一列火車，無聲無息地行進/ 一只野兔跑在前邊/ 鄉村，被一分爲二/ 剎那間，這邊的田野、村莊/ 感到那邊的河流、山脈有點兒陌生/ 像回憶，一列火車撞進鄉村/ 紀錄片的速度，恰好讓一種憂傷散去又凝聚〈火車，駛過鄉村〉，蘆葦泉

23) 風吹黑夜光滑的背脊，那些房屋/ 樹木沿着平原的水域遊動/ 一盞盞燈，一根根明亮的

‘기차’는 ‘고달프고 빈한한 농촌마을’의 ‘간이역’을 수시로 드나들며 ‘나무’, ‘달’을 ‘유동’하게 한다. ‘갈색의 검누른 달이 들판 저쪽에 서서 한 조각 한 조각 아득히 먼 입술로 물결모양의 봄밤에 붙고 있는’ 평화스러운 ‘농촌마을’은 ‘기차’가 들어와 정차하는 ‘5분간’ 동안 달뜨지만, ‘플랫폼에서 들어 올린’ 전송하는 ‘손’과 ‘유리창에 바짝 붙어’ 떠나는 ‘얼굴’이 아쉬운 이별을 나누고 ‘기차’가 떠나고 나면, ‘농촌마을’은 더욱 큰 ‘황량함’과 ‘추위’만 남게 된다. 그리하여 ‘기차’의 드나들은 불편해지고 ‘기차’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나를 보자 곧 큰 소리로 기적을 울리는 기차/ 전신이 모두 힘, 전신이 모두 힘
차게 내달리는 세포/ 한 대는 도시로 들어가고 한 대는 도시를 빠져 나온다/ 누구
도 누굴 보지 않는다/ 그 둘이 서로 만날 때의 미친 듯한 가속도// 도시, 이 색조
화장을 한 악마는/ 매일 너무나 많은 공상가와 실의한 자를 삼키고 내뱉고 있다/
정말 좋은 위가 하나 생겼다/..... — 〈교차하며 지나가는 기차 두 대〉 중 일부²⁴⁾

‘기차’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시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희망을 실어 나르지만, 그 ‘시티 드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차’는 자본의 ‘힘’과 이를 지탱하는 ‘세포’ 조직으로 사람을 인중에 두지 않는 ‘미친 가속도’로 끝없이 ‘도시와 농촌을 ‘힘차게 내달린다. ‘기차’는 ‘매일’ 꿈을 가진 ‘몽상가’와 ‘실의한 자’를 ‘삼키고 내뱉는’ ‘정말 좋은 위’를 갖고 있다. ‘기차’의 이러한 면은 ‘누구도 누굴 보지 않는’ 도시의 익명성과 너무나 닮아있다. 즉, ‘도시’는 ‘색조화장을 한 마녀’처럼 그 화려함으로 시티 드림을 가진 자를 유혹했다가, 경제적 이윤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 뱉어 버리는’ ‘기차’와 일란성 쌍둥이인 것이다. 농촌과 도시를 이어 주는 ‘기차’는 좀 더

刺/ 閃爍着, 舉起着, 村莊荒冷// 鐵路兩旁的場院, 奔跑的櫟樹林/ 田野, 燈火, 垂落平原的星星/ 綿延着風景, 春三月夜裏/ 啊, 多麼柔美! 眇動的月亮// 褐色的、灰黃的月亮站在田野那邊/ 一片片遙遠的脣吹着水紋樣的春夜/ 它的低吟, 苦難而貧寒的鄉村/// 火車停止遊動的五分的小站, 深夜三點/ 十五個蛇皮袋子擠上車廂, 他們的吆喝/ 點亮了村莊, 站臺舉起的手/ 貼在玻璃窓的臉, 汽笛正從平原上滑過 — 〈深夜火車〉, 鄭小瓊.

- 24) 見到我就大聲鳴笛的火車/ 渾身都是力氣, 渾身都是奔跑細胞./ 一個進城一個出城/ 誰也不看誰/ 它們兩個相遇的時候瘋子一樣加速度.// 城市, 這只化了彩粧的惡魔/ 每天吞吐着太多的幻想家和失意者/ 眞生了一只好胃/ — 〈兩列交錯而過的火車〉, 王小妮.

나은 경제적 富裕를 꿈꾸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부단하면서도 고단한 행렬이자 자본화·도시화가 낳은 욕망과 빈곤의 매정한 이중성을 지닌 채 「뱀처럼 먼 곳을 향해 기어가며(長蟲般爬向遠方)」, 「흠사 진실하지 못한 그림자(仿佛不眞實的影子)」²⁵⁾인 듯하다.

따라서 '기차'가 다니는 '철로' 역시 농민의 또 다른 희생을 재촉하는 「바로 전형적인 단두대(鐵路就是典型的斷頭臺)」로 인식된다. 농촌을 유동하게 하는 '이주 몸뚱이'인 '기차'는 도시까지 '소'도 내다팔고 '농민'도 시장에 내다판다.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내다팔린 '소'와 '사람'은 결국 목이 '잘리는' 운명을 맞이한다. 그들 '운명'을 실어 나르는 「기차는 감히 멈추지 못하고(火車不敢停頓) 매일 제 때 내 뒤쪽 창문(每天準時到我的后窗口大聲鳴笛)²⁶⁾을 지나가는데, 그 때마다 「마을 입구의 양어장에 물보라가 튀고(村口的魚塘, 水花微濺)」, 동요하는 「갯빛 새떼²⁷⁾가 울며 날아오른다(一群灰鳥尖叫着, 飛了)」. 동요하는 '갯빛 새떼'인 농민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기차'를 타고 도시로 진입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또 다른 절망의 이름인 '농민공'을 꼬리표처럼 달고 도시를 부유한다. 지금도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도시까지 열차에 가득한데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열광적인 애착으로 이 시대를 종결하러 가는 무리(從農村到城市/ 人們擠滿了列車/ 他們要用熱愛金錢的癡狂/ 去終結一個時代)」²⁸⁾ 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다.

Ⅲ. 농민공, 도시 浮遊의 슬픔

농민공은 사회적으로 농촌에 호구를 둔 농민이지만, 경제적으로 도시에서 비정규직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농민의 도시 진입은 2001년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1억6천 내지 1억 8천명이 도시로 진입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해마다 평균 1500만 명에서 1700만 명이 도시로 진입한 셈이 된다²⁹⁾. 농민공이란 용어가 정착되기 전에는 도

25) 〈시골 기차역〉(〈鄉村火車站〉), 江一郎.

26) 〈기차가 내 뒤쪽 창문을 지나가다〉(〈火車經過我的后窓〉), 王小妮.

27) 〈기차가 곧 오려한다〉(〈火車就要來了〉), 江一郎.

28) 〈끝내다〉(〈結束〉), 謝湘南.

29) 張躍進, 《中國農民工問題解讀》,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7. 21쪽.

시로 진입한 농민에 대해 ‘盲流’라는 사회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³⁰⁾.

어쨌든 중국 호구제도는 중국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아울러 사회치안을 유지하는데 편리한 제도로 하겠다. 그러나 호구제도가 일종의 사회신분의 차별을 낳은 신분제도³¹⁾로 고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심각한 사회 제반 문제를 파생 시키고 있다. 농민공들은 호구제도로 인해 겪게 되는 신분상의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나온 사람들이다.³²⁾ 이들은 도시민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경제적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마치 도시 하수구의 역할을 하듯 도시의 온갖 더럽고 힘든 일을 값싼 노동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차별과 냉대, 격리와 차가운 시선들이다.

버려진 철로 옆, 이곳은 성 가운데 까마귀가/ 모이는 이상적인 장소/ 빈곤, 살해의 더러운 번식지/ 이미 많은 여름을 파종하였네/ 그것들은 호적 없는 거주민/ 텅마를 줍고 도적질로 생존한다/ 그것들은 행동하는 것만 알 뿐 말할 줄 모른다/ 머리카락, 뺨에는 늘 때와 상처와 압담함으로 가득하다/ 그것들은 보통 잠간 동안만 머무른다 수용되고/ 쫓기는 교차지대에서/ 그곳은 햇빛이 소홀한 곳/ 이로 인해 (이곳을) 통과해 지나가는 사람들은/ 늘 가능한 빨리 빠져 나가려한다, 흡사 장차 발생하려는 전염병을 피해가듯이
— 〈철로 근처〉 전문³³⁾

도시에서 거주하는 농민공은 동향인들끼리 일종의 ‘集姓村’과 유사한 ‘城中村’을 이

30) 魏城, 《中國農民工調查》, 北京, 法律出版社, 2008. 63쪽 참고.

31) 魏城, 《中國農民工調查》, 北京, 法律出版社, 2008. 43쪽 참고.

32) 농민공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람 대비 토지가 작기에 농촌에서는 필연적으로 잉여 노동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농촌의 향진 기업 역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하여 잉여 노동력이 더 큰 도회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셋째, 농촌의 자연 재해로 인한 농업 손실을 견디지 못해 이농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중국의 ‘농업협상가격차(剪刀差)’로 인한 낮은 농가 수입 역시 농민의 도시 진입을 부추기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張躍進, 《中國農民工問題解讀》,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7. 24-27쪽 참고)

33) 廢棄的鐵路道旁, 這是城中烏鴉/ 聚集的理想場所/ 貧窮、凶殺的肮腸的滋生地/ 已經播種過許多個夏季/ 它們是些沒有戶籍的居民/ 靠拾荒和偷盜來生存/ 它們只知道行動, 不會言說/ 頭髮、面頰總是布滿灰塵, 傷痕和暗暗/ 它們通常暫住, 在/ 被接受和驅趕的交叉地帶/ 那裏是陽光忽略的地方/ 由此穿行而過的人/ 總是盡快地逃離, 像是在躲避一場即將發生的瘟疫 — 〈鐵路處〉, 鮮例.

루어 생활하는데³⁴⁾ 위의 작품은 바로 이러한 ‘城中村’에 대한 시라고 하겠다. ‘城中村’은 농민공의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표상한다. 그들은 비록 도시로 진입했지만 도시 공공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지 못했기에 도시민들과 같은 생활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³⁵⁾. 도시의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하는 ‘호적 없는’ 농민공은 도시에서 양면성을 지닌 집단이다. 이들은 도시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집단이기도 하며, 동시에 도시의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치안문제, 교통문제, 주거문제 등 골칫거리를 만드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들 농민공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데 일반 도시민들은 그들과 그들의 거주지를 ‘까마귀’와 ‘전염병’을 옮기는 ‘빈곤과 살해의 더러운 번식지’로 바라보며 철저히 그들을 격리하고자 한다. 실제로 베이징 한 외곽 농민공 거주지에는 높은 담벼락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통행증을 만들고 야간에는 통행금지를 시키는 곳이 생겼다는 기사³⁶⁾는 이를 반증한다. 도시 속 ‘전염병’을 옮기는 하수구 같은 취급을 받는 이들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일하면서도 도시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박탈당한 채 영원한 이방인으로 떠돌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편리하고 화려하며 충분한 소비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차갑고 냉정하다. 楊鍵의 〈같은 거리에서……〉(〈在同一條街道上……〉)는 피난가 듯한 인파(在酷似逃難的人流中)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這麼多人在擁來) 도시 속에서 아이를 업고 일을 찾는 시골 아녀자들(在背着孩子進城找工作的鄉村婦女中)」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있는데, 농민공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그들의 힘든 생활상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또한 王夫剛의 〈광저우동쪽 역에 쭈그러앉아 통곡한 귀향 농민공〉(〈蹲在光州東站痛哭的反鄉民工〉)에는 기차역에서 자신의 물건을 모두 잃어버린 한 농민공이 절규하듯 「머리를 싸고 울며(抱頭而哭) 경찰에게 호소하지만 그의 도난당한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手拏對講機的警察經過他們身邊但不停留)」 경찰과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그려놓아, 도시에서 농민공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그대

34) 張躍進, 《中國農民工問題解讀》,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7. 10쪽 참고.

35) 張躍進, 《中國農民工問題解讀》,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7. 40쪽 참고.

36) 2010년 7월 6일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계층민으로 살아가야하는 농민공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뿐이다. 그러면서 도시와 사회는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 간다.

오래된 고약처럼 가슴 앞에 붙어있는 밋밋한 유방, 게다가 신경질적인/ 날카로운 웃음은, 이 생활(우리와 공유하면서도 다른 종류가 아닌)에 다 짜인 늙은 여인과 같다/ 정오의 건축 현장에서// 그녀는 상반신을 드러낸 채 벽을 쌓는데 대다수 남자보다 더 민첩하다/ 그들은 그녀를 큰아버지라 부른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맥주를 꿀꺽꿀꺽 목에 부으며 그녀와 내기한다/ 씨발 그녀는 거친 욕을 하며 병을 찬다//……
— 〈여공〉 중 일부³⁷⁾

위의 시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야말로 공사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한 ‘늙은 여성’이다. 그녀에게 아름다움은 없다. 볼륨 없는 ‘밋밋한 유방’에 ‘웃음’은 ‘날카롭고’ ‘병’을 ‘차며’ ‘거칠게’ ‘욕설’을 한다. 오랜 하층생활로 거칠어진 농민공의 형상이다. 물론 위 시에 묘사되어 있는 여성을 농민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교육의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하고 힘든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외모와 인성이 마모되어 가는 그들의 모습은, 충분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언행이 천박하고 불결하기 그지없는 그들을 실제로 대면하여 인간적 예우를 다 갖추어 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들의 천박함과 불결함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희생 위에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마음껏 활용하며³⁸⁾, 오늘날 GDP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올랐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허난 농민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오후/ 내가 원고지 위에서 한가롭고 느리게 걷고 있을 때 뛰어들었다 어떻게 해야/ 가시나무덤불의 영어에서 편안한 중국어의 작은 길로/ 밟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일로 나는 거의/ ‘白沙³⁹⁾’ 반갑의 시간을 사용했다, “실례합니다만,/ 후쉬둥 형님 계신가요?” 옥스퍼드 자전 속

37) 舊膏藥似貼在胸前的平乳，加上神經質的/ 尖笑，等于這個被生活(與我們共有、而不是另一種的)榨幹的老女人./ 在正午的建築工地上，// 她赤着上身砌牆，比大多數男人更麻利./ 他們喊她大爹，衝着酸氣的啤酒咕咕灌着跟她打賭./ 操你孃的她罵罵咧咧，踢着瓶子// …… — 〈女工〉，陳先發。

38) 魏城, 《中國農民工調查》, 北京, 法律出版社, 2008. 87쪽 참고.

39) 중국 담배 이름 가운데 하나.

합박눈에/ 막 덮이려던 귀가 별안간 이 이상한 호칭을 들게 되었다/..... / “그 분은 나가셨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오세요.”/..... / 그는 그곳에 서 있었는데 목 안은 마치 한파가 갑자기 들이닥쳐 동파된/ 수도꼭지에 남아있는 물방울 소리를 이용하듯/ 내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후쉬둥이라는 이 사람을 원망스럽게 찾는 것은/ 그의 요 몇 년간 글을 쓰는 환경보다 더 힘들다/ 그는 이미 두 차례 온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복잡한 건물들 사이를 마치/ 내 책상에서 뻗어나가는 절망의 안개 한 조각으로 걸어 들어가 듯/ 어느 허난 농민공의 그림자는 마치 PH 실험지처럼/ 나의 스산하고 교활한 냉혹함을 드러내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쓰고 난 후에도 여전히/ 순박한 인민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범했음을 느낀다

— 〈어느 허난 농민공을 위해 지은 참회서〉 중 일부⁴⁰⁾

앞의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거친 하층민 농민공이었다면, 위의 작품에 등장하는 농민공은 시인을 찾아 불원천리를 달려온 수줍음이 많은 순박한 농민공이다. 위 작품을 지은 시인 胡續冬은 중국현대문학을 전공한 시인인데, 그의 시에서 느끼는 독특한 점은 등장인물에 자신의 이름을 실명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그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재 삼아 창작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시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고 난해하지만, 농민공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미안함과 자괴감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의 시인은 ‘허난’에서부터 자신을 보기 위해 공사장 일을 끝내자마자 ‘진흙’을 제대로 털지도 않고 달려온 어느 농민공 앞에서 당황해하며, 자신의 신분을 속여 그 농민공을 돌려보낸 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참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인이 농민공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언급이 없어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영문 작품을 중문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반 갑’이나 피우는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그를 찾아온 농민공과는 대화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허난 농민

40) 那個河南民工是在一個無所事事的下午/ 闖入了我在稿紙上悠閑的漫步： 如何才能/ 在一段荊棘叢生的英文裏踩出一條/ 舒適的漢語小路，這幾乎快讓我花去了/ 半包‘白沙’煙的功夫。“請問胡續冬大哥/ 在嗎？” 就要被牛津字典裏的鵝毛大雪/ 覆蓋的耳朵，突然聽到了這個奇怪的稱呼：/..... / “他出去了，你過一會兒再來找吧。”// 他站在那裏，喉嚨裏像是有一根被寒潮/ 驟然凍結的水龍頭，用殘余的水滴聲/ 向我傾訴，抱怨找胡續冬這個人/ 比他這些年的寫作環境還要艱苦：// 他走在複雜的樓郡之間像走進一片/ 從我的書桌蔓延開去的絕望的迷霧— 一個河南農民的身影像PH試紙一樣 / 顯現出我酸性的狡詐和冷酷，使我/ 在寫下這一切之后仍然感到/ 對朴實的人民犯下了不可饒恕的錯誤。 — 〈為一個河南民工而作的懺悔書〉，胡續冬。

공'은 시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복잡한 건물들 사이를' '시인의 책상에서 뺏어나가는 절망의 안개 한 조각'이 된 듯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간다. 이 농민공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산하고 교활하고 냉혹한' 자신의 행동을 참회한다. 이 시야 말로 지식인의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문제를 회피하는 지식인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한다.

불꽃놀이 불꽃이 어두운 공중에서 피었다 떨어지듯/ 여름과 그것의 상대한 일은 사라졌다/ 바람이 하루 종일 더욱 먼 곳의 서늘한 느낌을 보내온다//// 한 번은 내가 멈추어서 다 보았다/ 공장제복을 입은 다섯 명의 젊고 뚱뚱한 사람이/ 두 농부를 연행하고 그들 자전거에 실린 포도와 사과를/ 회수해가는 전 과정을// 오후, 나는 뜻밖에 이러한 장면을 경험하였다/ 만여 명이 넘는 사람과 홍색 깃발은 노천에 놓여 바람 부는데/ 고음의 나팔은 금속성 같은 호소와 맹서의 말소리를 내는 것을/ 관람석 가장 높은 곳에서 나는 흐린 날/ 흑록색의 회화나무 잎새들이 모두 흔들리고/ 온 나무마다 흔들려 반짝거리는 자주색 잎의 배나무를 본다/ 이때 바다 물결이 바야흐로 유랑객이 떠나간 넓은 모래톱에 세차게 내려치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겪었던 장면 사이에/ 어떠한 과도기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 〈불꽃놀이의 불꽃이 어두운 공중에서 피었다 떨어지듯〉 중 일부⁴¹⁾

시가 어둡고 난해해지는 것은 그 내면 언어로 독창적인 미적 세계를 연출하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강권에 눌려⁴²⁾ 우회적 장치로 삼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의 작품에 드러나는 침울하면서도 난해한 시적 연출은 우회적인 사회 비판의 시적 장치로 읽혀진다. 위의 작품에는 선명한 묘사와 난해한 상징이라는 두 가지 색깔이 공존하다. 즉, '농민공'에 의해 포장된 '대리석' '인도' 위에서, 노점상을

41) 像禮花在黑暗的空中綻放、落下/ 夏天和它的盛事隱沒了./ 風一天送來更遠處的涼意./// 有一次我站住, 看完了/ 五個穿工商制服的的年輕胖子/ 對兩個農婦和他們自行車駛着的葡萄化蘋果/ 行使捉拏的全過程./ 下午, 我竟親歷了這樣的場面:/ 一萬多人和一些紅色的旗幟被置于露天裏吹風/ 高音喇叭發出金屬般的號召和誓言./ 在看臺最高處, 我看着陰天/ 黑綠色的槐樹每片葉子都在抖動/ 整棵樹都搖晃閃爍的紫葉裏./ 我想起此時海浪正撲打着遊人離去的空曠海灘/ 驚異于在我們經歷的場景之間/ 不存在任何過渡. — 〈像禮花在黑暗的空中綻放、落下……〉, 雷武鈴.

42) 작가들이 개혁개방 이후 예전보다 많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유롭고 다양한 비판문화가 허용되는 정치적 성숙이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있는 농민이 '공상제복'의 경찰에게 과일을 '압수'당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면, '불꽃놀이'의 '불꽃'이 '어두운 하늘'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망함과,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고음의 나팔'로 '금속성'과 같은 날카로운 '호소'를 하는 모습 등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불꽃놀이'에서의 '불꽃'이 상징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혁명전쟁이든 문화대혁명이든 '인민해방'의 이름으로 현대사에 진행되었던 일련의 혁명들이 한순간의 '불꽃'처럼 쉽게 사라지고 오히려 인민에게 상처만 남긴 회한의 역사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혁개방 이후 화려한 경제성장이라는 '불꽃'이, 몇몇 특정 소수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되어 결국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놓은데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금속성'과 같은 '호소'를 위해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은 잦은 시위현장을 비유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농민 시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최근 0.5를 육박하는 높은 지니계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된 비판적 시선이 楊鍵의 〈아, 국가!(啊, 國度!)〉 등 적지 않은 시 작품에서 상징적이고 난해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 강바람은 농민공들의 회백색 의복에 부는데/ 그들에게 아직도 파내야 할 제방이 남아있다/ 그 중 두 사람은 돌 위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핀다//..... // 어린 송아지가 뛰는데/ 고통스럽게 비틀러진 기관은/ 강가에서 중얼거린다/ "설마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니겠지!" — 〈부둣가에서〉 중 일부⁴³⁾

농민공의 고된 노역은 "설마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강가'에 쓰러져 '중얼거리는' 농민공의 독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불행한 점은 이런 운명 의식이 농촌에 남아 고된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의 체념의식과 동일하다는데 있다. '강바람' 속에서 '제방'을 파내는 농민공 가운데 누추한 '회백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잠시 짬을 내어 '담배'를 물고 있는데, 그 옆에는 '어린 송아지'처럼 나이가 어린 농민공이 힘든 육체노동에 지쳐 온 몸이 '고통스럽게 비틀어진 채' 옆에 쓰러

43)// 江風吹刮着這些民工灰白的衣服,/ 他們還有一段江堤必須挖完,/ 其中兩個蹲坐在石頭上吸煙。//..... // 小牛犢跑起來,/ 一個痛苦的歪曲的器官,/ 在江水邊低語:/ "難道我是罪有應得.....?!" — 〈在碼頭邊〉, 楊鍵.

져 있다. 어른의 보호를 받으며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어린 나이에 시시포스가 되어 날마다 가혹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은 차라리 악몽인 것이다. 결국 농촌에 남아 농사일로 지친 삶을 살아가는 농민이나 도시로 나와 힘든 육체노동에 쓰러져 가는 농민공이나 사회 하층민으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면에 있어서 는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농민공의 비참한 현실은 다음 이어지는 작품 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거미보다 작고/ 모기보다 크다/ 나는 그들을 단지 파리로 밖에 볼 수 없다/ 마천루에 달라붙어있는데/ 유리창의 빛은/ 그들의 검은 얼굴을 부각시킨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어두움이 유리를 빛나게 만든다고 하겠다/ 그들이 떨어질까 내가 걱정할리 없다/ 그들을 묶고 있는 줄이/ 쉽게 그들을 탈출시킬 리 없기에 / 출퇴근하는 길 위에/ 나는 그들을 보며/ 다만 반복적으로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 가장 낮은 계층의 생활이/ 어째서 저렇게 높은 곳에 도달하고자 할 때야/ 비로소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를
— 〈유리창 청소부〉 전문⁴⁴⁾

도심 고층건물 유리창에 밀착한 채 아슬아슬하게 유리를 닦는 사람들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들은 검게 그을린 얼굴로 ‘줄에 묶인’ ‘파리’처럼 ‘마천루에 달라붙은 채’ 유리창 닦는 작업을 한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인 ‘유리창 청소부’인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꼭대기에서 유리창을 닦는 모습이라든가, ‘유리창 청소부’의 안전을 지켜주는 ‘밧줄’이 그들의 삶을 옴매는 족쇄라는 점 등은 씁쓸한 해학이다. 농민공의 비참한 하층 생활은 그들 노동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게 지급되지 않은 한 개선될 수 없다. 2004년 기준 농민공의 연평균임금은 8000위안이었던 것에 반해 도시민의 연평균임금은 15000위안이었던⁴⁵⁾.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마천루 위험한 높은 곳에서 하나의 끈에 의지한 채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죽음’과 ‘저임금’ 뿐인 것이다.

44) 比一只蜘蛛小/ 比一只蚊子大/ 我只能把他們看成是蒼蠅/ 吸附在摩天大樓上/ 玻璃的光亮/ 映襯着他們的黑暗/ 更準確的說法是/ 他們的黑暗使玻璃明亮/ 我不會擔心他們會掉下來/ 綁着他們的繩索/ 不會輕易讓他們逃脫/ 在上下班的路上/ 我看見他們/ 只反反復復有一個疑問/ 最低層的生活/ 怎麼要到那麼高的地方/ 才能掙回 — 〈玻璃清潔工〉, 盧衛平.

45) 張躍進, 《中國農民工問題解讀》,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7. 105쪽 참고.

한 농민공이 비계에서 떨어졌다/ 한 농민공이 아주 높은 비계에서 떨어졌다/ 한 부모의 아들이 아주 높은 비계에서 떨어졌다/ 한 여인의 남편이 아주 높은 비계에서 떨어졌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높은 비계에서 떨어졌다/ 농민공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어떤 사람의 놀라 갑작스럽게 지르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놀라 소리를 질렀으나 좀 지나자 처음과 같은 평정을 찾았다// 농민공은 아주 높은 비계에서 사라졌다/ 질주하며 차를 몰고 온 사장의 작업장에서 사라졌다/ 사장은 다가와 힐끗 보더니/ 아랫사람에게 깨끗한 물로 땅바닥의 핏자국을 씻어버리라고 명령했고/ 그의 작업장은 종전처럼 운행 된다/ 그는 3만원을 던져놓고 코를 찌를 정도로 취해서는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 농민공과 죽은 듯이 잠 들었다
— 〈한 농민공이 비계에서 떨어졌다〉 전문⁴⁶⁾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농민공’이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비계에서 떨어졌다’는 시구는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이는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일종의 의식적인 장치로 보인다. 시인은 ‘한 농민공’의 사고사에 대해 마치 뉴스보도처럼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데 ‘한 농민공’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하고자 한 장치로 보인다. 현장의 많은 사람들은 ‘농민공’이 떨어지는 걸 목격하고 순간 놀라 ‘소리를 지르지만’ 곧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여 다시 일을 한다. 한편 농민공 사고사 소식을 들은 ‘사장’은 현장에 달려와 한편으로는 ‘핏자국을 씻어’ 사고 증거를 지우라고 ‘명령’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족에게 ‘3만원’을 건네주며 합의하고 책임을 면한다. ‘사장’은 일사천리로 농민공 사고사를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 술 마시고 ‘잠’을 잔다. ‘잠’과 ‘죽음’은 경계가 없다. ‘잠’은 인간 양심의 상실을 상징한다. 즉, 양심을 상실한 인간은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냉소적인 시각이 포착되는 작품이라 하겠다.

농민의 도시 진입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농민공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

46) 一個農民工從腳手架上掉下來了/ 一個農民工從高高的腳手架上掉下來了/ 一雙父母的兒子從高高的腳手架上掉下來了/ 一個女人的丈夫從高高的腳手架上掉下來了/ 兩個孩子的父親從高高的腳手架上掉下來了/ 農民工慘叫一聲/ 突然有人驚叫一聲/ 許多人跟着驚叫了一聲/ 救護車也跟着驚叫了一聲. 爾后平靜如初// 農民工從高高的腳手架上消失了/ 從開着奔馳車的老板的工地上消失了/ 老板過來掃了一眼/ 命令手下的人用清水衝掉了地上的血蹟/ 他的工地照樣運行/ 他甩給三萬塊錢, 醉熏熏地回家睡覺去了/ 與那個農民工睡得一樣死 — 〈一個農民工從腳手架上掉下來了〉, 田禾.

만47),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중국 정책은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미흡하다. 임금, 의료, 교육 등 제반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공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책은 체계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48). 胡鞍鋼은 ‘一國兩制’라는 용어로 농민공에 대한 이러한 이원화된 차별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였다49).

농촌보다는 좀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도시로 진입한 농민공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도시의 차가운 차별과 경멸의 시선이다. 이들은 낮은 교육 수준과 차별정책으로 인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그들은 불결하고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낮은 보수를 받으며 도시 속에 있으나 도시로 진입하지 못한 채 부유한다. 만일 유목 생활에서 농업문명으로의 전환과정을 ‘유목’에서 ‘정주’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농촌생활에서 도시문명에의 전환과정은 아마도 다른 종류의 ‘정주’에서 ‘浮遊’일 것이다.50) 현재 농민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 하층민에 대한 관심은 다소 냉정한 관점에서 보자면 농민노동자 생존을 위한 실천적·참여적 글쓰기라기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관심분야에 지식인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 있는 정도51)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47) 胡鞍鋼은 중국농민공 정책을 ‘빨간 등(紅燈)’, ‘노란 등(黃燈)’, ‘푸른 등(綠燈)’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빨간 등’의 단계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부터 1983년 전까지 농민이 도시로 거의 진입할 수 없었던 시기이고, ‘노란 등’의 단계란 1984년부터 20세기 말까지로 농민의 도시 취업이 불법이었던 시기이고, 푸른 등’의 단계란 21세기 본격적인 농민공 진입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孫自法, 胡鞍鋼, 《中國存在‘四農’問題, 農民工問題是核心》, 中新社, 2005. 3.2.; 劉小年, 《中國農民工政策研究》,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7. 51쪽 재인용)

48) 劉小年, 《中國農民工政策研究》,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7. 42-44쪽 참고.

49) 劉小年, 《中國農民工政策研究》,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7. 52쪽 참고.

50) 如果說遊牧文明向農業文明的轉變過程是遷居變定居, 那鄉村文明向都市文明的轉變過程大概就是另一種意義上的定居變遷居 (魏城, 《中國農民工調查》, 北京, 法律出版社, 2008. 5쪽 참조)

51) 江臘生, 〈當下農民工書寫的想像性表達〉: 《文學評論》, 北京 中國社會科學研究所, 2008.3. 201쪽 참고.

IV. 나오며

본고에서는 李少君의 시 선집 《21世紀詩歌精選》 1집과 2집 가운데 농민문제를 다룬 70여 수의 작품을 텍스트로 삼아, 농촌에 잔류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과 도시로 떠나와 노동자로 살고 있는 농민공의 힘든 현실을 중심으로 중국 농민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이들 작품에는 적절한 보상 없이 고된 농사일에 혹사당하고 있는 농민, 농지변경과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토지, 점점 공동화로 퇴락해가는 농촌마을, 기차로 도시와 농촌을 우왕좌왕 오가며 부유하는 농민공, 도시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격리당하며 시민권을 얻지 못해 도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지만 온갖 힘든 노동에 종사하는 농민공 등 기층 민중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농민의 형상과 그들의 팍팍한 삶이 담겨있었다. 농촌 농민노동자이든 도시 농민노동자이든 그들에게 공통적이고 가장 적절한 단어를 하나 들어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희생’이다. 이러한 농민문제를 바라보는 시인들은 시선은 진심어린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무기력함이 배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시인들의 농민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지식인층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농민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 작품 속에 농촌 토지 분규, 농촌 관료 전횡, FTA 관련 농촌 불이익 현황,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문제, 농촌 인프라 구축 미비, 낮은 교육수준, 사회보장제도 미비 등 산재되어 있는 제반 농민문제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농민문제에 대한 시인 지식인층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농민문제에 관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난해한 상징적 수법을 이용하여 시인의 의중을 명증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시는 장르적 특성 상 은유와 상징으로 시인 자신만의 고유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유독 비판적이어야 할 부분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 상징적 수법을 사용하여 시인의 의중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는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적인 중국 정치·문화 속에서 시가 위축되어 나타난 특징이라 판단된다.

본고는 일부 당대시를 표본으로 삼아 중국 농민문제를 분석하였기에, 중국 당대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시각을 확보했다고 할 수 없으나, 일부 당대시 작품들을 통

해 현금 중국 농민문제를 접근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농민문제는 진부한 사회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농민문제가 향후 중국사회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또한 우리나라 역시 고질적인 농민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농민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민감한 사회적 주제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어떠한 생명도 토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 농민문제는 결국 시원적인 인간과 생명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기에 농민문제는 중요한 시문학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함을 환기하는 바이다.

【參考文獻】

- 李少君主編, 《21世紀詩歌精選》·第1輯,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6.
 李少君主編, 《21世紀詩歌精選》·第2輯,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7.
 魏城, 《中國農民工調查》, 北京, 法律出版社, 2008.
 張躍進, 《中國農民工問題解讀》,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7.
 劉小年, 《中國農民工政策研究》,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7.
 蔡繼明, 〈中國土地制度改革〉: 《二十一世紀》, 第111期, 香港, 香港中文大學, 2009. 2.
 江臘生, 〈當下農民工書寫的想像性表達〉: 《文學評論》, 北京 中國社會科學研究所, 2008.3.
 이일영, 〈중국의 농촌개혁과 '삼농'문제〉: 《현대 중국의 이해》, 나남출판, 서울, 2005.
 서범석, 〈신경림의 《농무》 연구〉: 《국제어문》 37집, 국제어문학회, 2006. 8.
 박경수, 〈한국 근대 농민시의 전개과정과 현실표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14집, 한국 문학회, 1993. 11.
 최현실, 〈최근 중국의 농민공 동향〉: 《아시아 여성연구》,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10년 49권 1호, 2010.5
 왕후이 외/ 장영석 외, 《고뇌하는 중국》, 길, 서울, 2006
 친후이·쑤원/ 유용태 역, 《전원시와 광시곡—농민학에서 본 중국의 역사화 현실사회 비판》, 이산, 서울, 2000
 모리스 마이너스/김수영 역,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2, 이산, 서울, 2007
 유용태, 《지식청년과 농민사회의 혁명》, 문학과 지성사, 서울, 2004
 서범석, 《한국 농민시 연구》, 고려원, 서울, 1991

【中文提要】

2001年中國入世以來，逐漸加強資本主義系統，促進中國經濟快速發展，可是另一方面也有了許多負面影響。基尼系數高起來了，這就是很成社會問題。特別是都農收入差距越來越大。2002年胡錦濤政府提倡“和平社會論”而籌辦各種政策，因而提高對於‘三農’問題社會的關心。雖然政府政策很多、社會的關心很高，但是‘三農’問題越來越嚴重了。那為什麼這樣發生政策與現實的差距呢？

筆者通過2000年代以後發表的當代詩，其中分析李少君所主編的《21世紀詩歌精選》第1輯及第二輯研究了現今農民、農村、農民工等農民問題及知識分子對於農民問題的認識如何。通過該研究可以知道是下面幾種事實。首先，知識分子對農民問題，特別農村空洞化問題和農民工問題真正感覺到擔心、憐憫。其次，詩人寫出農民問題的主題不那麼多。再次，他們對農民問題批評不那麼強，甚至用隱喻來難以判斷詩的內容。固然對詩的特點上來說，未必要直說詩人感情，但是詩人態度沒有勇氣批判諸如農民問題。

衆所周知，誰都離不開土地能活。農村供給食糧、各種原料，精神上的安慰。還有歷史上來說，有時候形成政治革命力量。支持、幫助社會變革或者革命，農民成爲主要革命力量。可是自古以來他們總受到歧視、經濟上損失。從長遠來看，中國農村真正發展，中國社會可以持續發展。還之來說，應該保障農民利益，追求農村發展。

【主題語】

農民，農民工，農民問題，農村，土地